

여수 금오도 주민들 "국립공원 해제해 주오"

"40년동안 재산권 침해 심각" 1500명 탄원서 환경부에 전달 타당성 조사 중인 국립공원공단 시·주민과 구역 조정 협의키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여수 금오도 주민들이 환경부에 공원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6일 금오도 여남중·고 체육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금오도 주민 15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환경부에 전달됐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및 여수시 관계자, 거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불편 호소와 함께 농경지인 전답과 임야의 7부(70%) 능력까지 해제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40년간 국립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마을 인근의 논과 밭을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 행위규제 완화 등에 따른 자연공원법 개정과 해상 펜션 설치사업 등 해안가 개발행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사실상 금오도 전체의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09년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 주거지와 전답 등 생활불편 부분에 대한 지정 해제 요구를 다수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주민들은 일부 주거지역을 포함, 최소한의 면적만 해제돼 외딴 가옥과 농경지 등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홍 금오도 이장협의회 회장은 "사유지임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허가 없이 나무 한 그루 벨 수 없었던 주민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부당한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상국립공원 지정 이전 1만 7000명이 넘었던 주민



매년 30만명이 찾는 명소로 이름을 얻고 있는 금오도지만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생활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왔다며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비경으로 꼽히는 금오도 비령길 출렁다리. <여수시 제공>

수가 지금은 3000명 정도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농사를 지으려면 포크레인이나 들어가 길을 넓혀야 하는데 공원으로 묶여 지계를 지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처럼 농경지 경작을 위한 정지 작업은 물론 벌목 등에 대한 상시 단속과 주택 신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거주민을 비롯한 전입 희망자들도 금오도의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0년 단위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작된 제 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내년 12월 말까지 용역조사를 거친 후 확정·고시된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생태기반 평가와 용도지구 적합성을 평가해 생태적 가치 여부를 따진다.

가치가 높으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가치가 낮으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립공원 구역 해제 적합성 평가도 실시한다.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타당성 조사 검토기준 안을 공민위원회에 보고·확정하고 국내 공민별 생태기반과 적합성 평가, 타당성 조사 검토 조정(지역협의체)을 거쳐 제 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공민위원회에 최종 상정하게 된다.

이번 금오도 주민 청원은 정부 규정(자연공원법 등)상 전 국토 면적의 15%를 공민지역으로 유지해야 하고 자발적 국제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17%까지 공민 면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기에 지정 해제를 따른 국립공원 대체지역을 편입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특히 기존 국내 국립공원 생태기반 평가 방법이 기존 절대평가(5개 항목)에서 상대평가(19개 항목)로 변경돼 국내 천연 생태계에 대한 보호 기준이 더욱 강화된 상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농사와 어업 등 주민 생계와 관련된 규정이 어긋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다소 절차

금오도 비령길

매년 30만 명이 찾는 명소로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수의 대표적인 해안 도로(寶庫)다. 비령의 여수 사투리인 비령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천연의 절경을 간직한 금오도의 아름다운 해안절벽과 단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관광객 등 탐방객을 위해 지난 2010년 여수시가 본격 조성하면서 빼어난 해양 풍광으로 남해안 대표 트레킹 코스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가 복잡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며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실질적 소통을 위해 여수시와 공단,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구역조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 금오도 지구 176㏊는 거문도·백도 242㏊와 함께 지난 1981년 12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상의·국조실 규제개선추진단 공동

오늘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여수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여수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수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여수시청 인근에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공동으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 현안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민간기업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여수국가산단 용지의 부족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폐수처리 용량 확보, 해양물류의 체선 개선 등에 대해 현안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기업별 의견을 전달한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여수는 내수부진과 세계경기 위축에도 민간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기업경영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활동을 힘있게 하는 현안 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규제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현안 사항을 발굴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설립·운영 중인 조직이다.

한편 여수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11시 여수상의 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여수기업사랑협의회를 개최한다.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2006년 설립된 여수기업사랑협의회는 여수시를 비롯해 33명의 유관기관장·기업체 대표가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기업활동 지원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화물차·전세버스 이면도로 밤샘주차 단속

여수시는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상습 '밤샘주차' 구간인 죽림리 신승공원, 선원동 선사유적공원, 여천초교와 농업기술센터, 신기동 망마체육공원, 문수동 부영9차아파트, 국동 여항단지 주변을 새벽에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차량 중 지역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원) 처분을 진행하며, 관외 차량은 해당 지자체로 이첩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의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소음공해, 차량통행 방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며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화물자동차 88대, 전세버스 23대, 타 지자체 이첩 20대 등 차량 131대를 적발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한방 난임 프로그램·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착순 모집

여수시는 22일까지 한방 난임 프로그램과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체질 개선과 건강관리를 통해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 참여 30명, 치료비 지원 12명 등 42명이다. 프로그램은 여수시민에게 무료로 진행하며 치료비 지원은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581만원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검진 결과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SMS로 개별 안내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3개월간 적외선 치료, 침, 뜸 등의 진료가 제공되며 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4개월간 1인당 180만원 한도로 침구치료(약)비가 지원된다. 사업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절감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영취산서 미세먼지 저감 위한 나무심기

여수시·여천NCC 등 50명 참여

여수시가 최근 영취산 일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1사1산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여수시, 전남환경영구운동본부, 여천NCC(주)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편백나무 200주를 심었다.

1사1산 가꾸기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체와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과 하천을

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창정 여수시 기후환경과장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점에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 것은 매우 뜻 깊고 고무적이다"면서 "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청 공무원 차량 2부제, 진공흡입 청소차와 살수차 투입, 시민 홍보 등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전남환경영구운동본부, 여천NCC(주) 직원 50여 명이 지난 8일 영취산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 | |
|-------------------|----------------------|
| 태양광 100Kw |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
|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 |

| | |
|--------------------------------|---------------|
| N+B N+B Energy Corp. |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
|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
| 한국전기공사협회 | |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